2014년 9월 16일(화) 배포 즉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www.smba.go.kr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보 도 자 료

중소기업청 Small &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 **문의** : 중기청 창업진흥과 과장 김성섭(042-481-4407) 사무관 이하녕(042-481-8914)
창업진흥원 조사연구팀 팀장 조성현(042-480-4360) 주임 조상래(042-480-4364)

한국 창업생태계, 대학창업·기술금융·회수시장 활성화 필요

- 중기청,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 결과 발표 -

□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창업진흥원(원장 강시우)은, 창조경제연구회(이사장 이민화)를 통해 **「한·중·일 창업·벤처 생태계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중국의 교판(校辦)기업*·일본의 대기업발 사내벤처(Corporate Venturing) 등 우리 창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 중국의 大學發 기업으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출자, 설립한 기업 중 첨단산업 분야에 특화된 대학 기업이라고 할 수 있음

○ 이번 연구는 **선순환 사이클 모델***을 기반으로 **한·중·일 3개국**의 **창업·벤처 생태계**를 **집중 분석**하고,

* **선순환 사이클 모델** : 인벤션·아이디어 사이클→엔젤·사업화 사이클→벤처·마케팅 사이클→리커버리·선순환 사이클→인벤션·아이디어 사이클

○ 생태계의 선도국가인 미국과 비교하고 각국의 장·단점을 분석하여 **한국의 벤처·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보완점을 제안**하였다.

□ 본 연구의 **세부 결과**들은 다음과 같다.

○ **(인벤션/아이디어 사이클)**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1인당 출원 건수**는 **0.41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인 반면, IP 로열티의 경우 중국과 한국은 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 특허의 질을 높이고, **로열티 수입·기술금융 등 특허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엔젤/사업화 사이클) 엔젤투자 비중**은 GDP 대비 0.01%에 못 미치는 수준이며, **M&A 규모는 중국·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으로,

- 엔젤투자 및 미국(Facebook, Google 등), 중국(Alibaba, Tencent 등)과 같이 대기업 주도 M&A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벤처/마케팅 사이클) GDP 대비 벤처캐피탈 비중**은 한·중·일 3개국 중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IPO**의 경우 상대적으로 저조,

- 코스타 등 투자회수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 **(리커버리/선순환 사이클)** 대표적인 창업기업의 성공 이전 평균 실패 횟수는 **한국의 경우** 1.3회이나 중국과 미국의 경우 2.8회로,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실패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번 연구를 주관한 창조경제연구회에 따르면 한국은 공급중심형, 중국은 시장지향형, 일본은 기술중심형, 미국은 밸런스형의 특징을 보이고 있었으며,

○ 특히 한국은 공급중심형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술금융을 강화하고 M&A와 IPO 등 회수시장의 활성화로 '선순환 생태계 구축'에 보다 힘쓸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 중기청은 이와 관련하여 지난 **벤처·창업활성화대책('13.5), 기술창업 활성화 세부 추진방안('14.3) 등 그간 내놓은 벤처·창업 정책을 근간으로,**

○ 이번 연구가 제시한 **중국의 천인(千人)계획·교판기업 및 일본의 대기업발 벤처 등 한국이 배울만한 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특허를 활용한 **기술금융·대기업의 창업지원 및 사내벤처 확대 등 향후 정책보완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과 이하녕 사무관(☎ 042-481-8914)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

(1) 인벤션/아이디어 사이클(특허출원, IP로열티)

○ **(특허출원)** '12년 기준 한국의 총 **특허 출원 건수는 204천개**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1인당 출원 건수는 0.41건**으로 **세계 최고 수준**

○ **(IP로열티)** 미국과 일본은 IP를 통한 수입이 더 많았으며, 중국과 **한국**은 **적자**를 기록

< 국가별 특허출원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특허출원 (천개)	186.3	193.1	203.9	391.2	526.4	652.8	344.6	342.6	342.8	490.2	503.6	542.8
1인당 출원 건수	0.38	0.39	0.41	0.03	0.04	0.05	0.27	0.27	0.27	0.16	0.16	0.17
IP 로열티 순수익(억달러)	-58.9	-29.6	-49.5	-122.1	-139.6	-167.0	79.1	98.2	119.9	749.7	859.3	842.8

(2) 엔젤/사업화 사이클(엔젤캐피탈, M&A)

○ **(엔젤캐피탈)** 한·중·일 3개국의 **엔젤투자 비중**은 GDP 대비 0.01%에 못 미치는 수준

< 국가별 엔젤캐피탈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엔젤 투자 규모 (백만달러)	33.24	41.72	50.88	82.24	98.56	112.14	200.00			22500		
엔젤 투자 비중 (GDP 대비, %)	0.0030	0.0035	0.0042	0.0014	0.0013	0.0014	0.0034			0.1448		

○ **(M&A)** 한국의 **M&A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은 **대기업 중심** 생태계인 일본에 비해 **우세**하지만,

- **규모**는 중국(200억달러)의 1/40, 미국(400억달러)의 1/80 수준

< 국가별 M&A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M&A 규모 (억달러)	5	200	3	400
M&A 비중 (GDP 대비, %)	0.043	0.279	0.005	0.257

(3) 벤처/마케팅 사이클(벤처캐피탈, IPO)

○ **(벤처캐피탈)** 한국의 '12년 **GDP 대비 벤처캐피탈 비중**은 한·중·일 **3개국 중 가장 우위**를 점하고 있는 수준

< 국가별 벤처캐피탈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벤처캐피탈 규모 (억달러)	10.6	12.3	12.0	54.0	127.7	73.0	11.1	12.2	10.1	-	291.0	-
벤처캐피탈 비중 (GDP 대비, %)	0.097	0.102	0.098	0.091	0.174	0.089	0.020	0.021	0.017	-	0.187	-

○ **(IPO)** 한국의 **IPO 규모** 및 **GDP 대비 비중**은 비교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

< 국가별 IPO 주요 지표 현황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2010	2011	2012
IPO 규모 (억달러)	97.3	41	9.7	1,044	564	261	146	8	112	387	322	392
IPO 비중 (GDP 대비, %)	0.889	0.341	0.080	1.760	0.770	0.317	0.266	0.014	0.189	0.259	0.207	0.241

(4) 리커버리/선순환 사이클(평균 실패 횟수)

○ **(평균 실패 횟수)** 한국의 **평균 실패 횟수**는 **1.3회이며,** 일본은 1.0회, 미국·중국은 각각 2.8회

< 국가별 평균 실패 횟수 >

구분	한국	중국	일본	미국
평균 실패 횟수	1.3	2.8	1.0	2.8

(5) 국가별 생태계 종합 비교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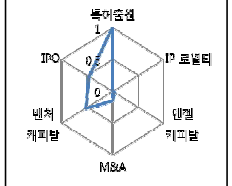
○ **(한국)** M&A, IPO, IP 로열티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지만, 특허출원과 벤처 캐피탈 부분이 발달한 **"공급중심형"** 생태계

○ **(중국)** 특허출원과 IP 로열티 부분은 열악하지만, M&A와 IPO는 세계 최대 규모로 성장한 **"시장지향형"** 생태계

○ **(일본)** M&A와 IPO는 열악하지만, 특허출원 및 IP 로열티 부분은 미국 다음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중심형"** 생태계

○ **(미국)** 벤처 생태계의 모든 사이클이 고르게 발달하여 선순환 벤처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밸런스형"** 생태계

< 국가별 생태계 그래프 비교 >

한국	중국	일본	미국
			
공급중심형	시장지향형	기술중심형	밸런스형